

Cori

From: Case, Jeff [mailto:jcase@AdventInternational.com]

Sent: Monday, December 1, 2014 5:12 PM

To: Hy Kim

Cc: Cori Lynn Connell; @ Board Members; John Dawson; Karen Cate; Daniel Lecocq

Subject: Re: CHINA - Update

Agree with HY

Jefferson Case
Advent International
(617) 951-9407

On Dec 1, 2014, at 4:40 PM, HY Kim <hy.kim@cdibh.com> wrote:

1

제출자:법무법인 세종, 제출일시:2017.04.19 20:07, 출력자:박세출, 다운로드일시:2017.04.20 15:45

① Hi Cori / John... Than for the update. On Eland, we can expect to finalize the two remaining points shortly and move forward quickly. On tnp, had enough of this guy and his threats and our goal should be to get him out of our system completely, ie NO Hong Kong ADA and their 2-3 HK stores closed or transfered / rebranded if he intends to continue operation. We can get the likes of Swire Group to be our partner in HK. We confirmed YK is negotiating or has obtained franchise rights from Segafredo (dumb Italians!) for China. I hate to think YK pulled a fast one and we provided him with capital refund to obtain / operate competing Segafredo coffee brand but he can keep his 14 or so unclosed stores in Shanghai and 2-3 stores in Beijing and 2-3 stores in HK and operate as Segafredo so long as we take back HK and get him out of our system. Other alternative of forcing him to close all China stores as agreed and allow retaining HK ADA will only prolong the inevitable in HK and repeat of another process to terminate him which to me is less compelling. We do NOT trust him so make it clear no payment of \$12mil until HK ADA terminated. Do get YK to admit he will convert and operate Segafredo, and do make it difficult for him. He is in desperate urgent need of funds to pay Segafredo franchisee fees, pay landlords back rents and pay retained staffs, and convert the stores to Segafredo... no need to make it easy for this terrible person!

Thanks and good luck!
HY

갑 제 42 호 의

보낸사람: 제프케이스(jcase@Adventinternational.com)

보낸날짜: 월요일, 12월 1일 2014년 5:12오후

받는사람: Hy Kim(김현용)

참조: 코리린코넬;이사회임원들;존도슨;카렌케이트;다니엘레코크

주제: Re:China-Update(Re:중국-업데이트)

아래사항 번역

김현용에 동의함

제퍼슨 케이스

어드벤처 인터내셔널

(617)951-9407

12월 1일 2014년 4:40 오후 김현용<hy.kim@cdibh.com>이 쓰다.

하이 코리/존...업데이트 고맙다. 이랜드와 관련하여 조만간 남은 2개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신속히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TNPI의 경우, 이 사람이 진절머리 날 정도로 겪었고 그의 위협도 지긋지긋하다.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아웃시키는 것, 즉, 홍콩에 대한 운영을 지속하길 원하더라도, 홍콩 ADA 해지, 그리고 그들의 홍콩 매장 2-3곳을 폐점/이전 또는 리브랜딩 하는 것 등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Swire Group과 같은 업체가 우리 홍콩 파트너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YK가 협상 중이거나 중국 내 Segafredo 프랜차이즈권(명칭한 이탈리아인들!)을 따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YK가 속여서 경쟁업체인 Segafredo 커피 브랜드를 따내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제공해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조차 싫지만, 우리가 홍콩을 다시 되찾고 그를 우리 시스템에서 제외시킬 수만 있다면 Segafredo 브랜드로 운영되는 아직 문닫지 않은 상하이 매장 14곳 정도와, 베이징 매장 2-3곳, 홍콩 매장 2-3곳을 계속해서 YK에게 두게 할 생각이다. YK에게 합의한 대로 중국 매장을 모두 폐점시키고 HK ADA를 계속 유지한다는 대안을 따른다면 홍콩에서의 불가피한 일을 지연시킬 뿐이고 YK를 해지(원고회사의 홍콩사업권을 해지)하기 위한 과정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 우리는 YK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HK ADA와의 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1,200만 달러가 지급되지 않게 확실히 해 주기 바란다. YK로 하여금 전환하여 egafredo를 운영하겠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반드시 유도시켜라, YK에게 있어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라. 그는 Segafredo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임대주에게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매장들을 Segafredo로 전환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이런 끔찍한 사람에게 상황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